

경찰관서 노후·도서지역 치안 부재 심각

국감으로 본 전남경찰 현주소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이 10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또 30년 이상돼 보수가 심각한 노후한 경찰관서는 수십여곳에 이르고, 도서지역 치안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9%로 전국 평균(2.0%)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면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보도침범, 개문발차, 무면허 운전 등 7개 부분에서 치사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전남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8.4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07년부터 10년 연속 해마다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진 의원은 특히 “지난 4년간(2013~2016년) 전남에서 교통사고로 1646명이 숨졌는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793명(48.1%)이나 됐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전남 지역에서 올해 스킨초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23.8%나 증가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지역 경찰관서 10곳 중 1곳은 지은 지 30년 이상 오래돼 보수가 시급하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전남지역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등 350곳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경찰관서는 52곳(12%)으로, 가장 노후한 41년된 관서는 여수순죽, 여수월호, 진도동거차 치안센터 등 3곳이나 되고, 36~40년된 관서는 12곳, 30~35년된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0년 연속 전국 최다 오명

30년 이상된 경찰관서 52곳

도서지역 인력·장비 태부족

관서는 27곳에 이른다”며 “건물 노후화로 인원을 충당하기에도 협소하고 누수 등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신속하는 게 더 나을 지경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관서가 적어도 물이 새고, 비좁은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 도서지역에 대한 치안 부재를 우려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전남 유인 도서에 45곳 치안센터마다 근무 인원은 1명뿐이며, 담당하는 주민수도 평균 236.8명에 이른다”면서 “특히 순찰차나 오토바이 등 기본적인 기동장비조차 없는 치안센터도 25곳이나 돼 제대로 된 치안관리가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염전 노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전남 도서 지역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치안인력 보강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서지역 치안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신안경찰서 완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전남 도서지역 치안부재는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북 전남경찰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치안 부재를 위한 경찰력 확충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24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전남경찰청 경찰관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양 유명맛집 도대체 무슨 일이?

알바생 10여명 수당 미지급·폭행 항의 시위 시골

업주 “충분한 보상 약속했는데 터무니없이 요구”

담양의 한 유명맛집이 아르바이트생 수당 미지급 등을 놓고 시끄럽다. 특정일에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주요노동운동권네트워크는 지난 18일부터 담양의 모 식당 앞에서 한 달간 집회와 시위를 열고 1인 시위 및 토요집회를 하고 있다. 이 식당은 TV에도 수차례 출연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숯불돼지갈비 전문식당이다. 이 식당에서 2015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길게는 2년에서 짧게는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18명은 주휴·연장근로·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 총 6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근무 과정에서 폭언·폭행까지 당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했고, 노동법을 몰라 발생한 일부 수당 미지급은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는데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식당측의 주장이다.

식당주인 김모(여·58)씨는 “협금으로 임금을 주는 바람에 직접 임금대장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돈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남긴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특정 단체의 개입 이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18명의 피해자 중 4명은 식당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들 중 40여 만원을 요구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미지급된 금액이 400만원이 아닌 70여만원으로 확인돼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봤다.

서재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 감독관은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계약서 등이 없어 정확한 근무기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감독관은 또 식당측이 주장한 아르바이트생의 과도한 금액 요구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기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를 해도, 노동청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면서 “식당업주가 따로 민사소송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살인 전과자 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4일 노래홀에서 손님용 흥기로 찢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3일 밤 11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노래홀 카운터 앞에서 유모(53)씨의 오른쪽 배를 흥기로 한 차례 찢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홀로 노래홀에 간 장씨는 자신의 노래 순서를 기다리다 지쳐 행패를 부리다 숨진 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노래홀은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다른 손님들이 다툼을 제지하자 집으로 귀가한 장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흥기를 쟁겨 노래홀을 다시 찾았다. 장씨는 썩은 노래홀에서 술을 마시던 유씨에게 다가다 찢고 흥기를 휘둘렀다. 이후 장씨는 흥장을 빠져나가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는 여유를 부렸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장씨를 붙잡았다.

앞서 장씨는 2005년 1월 4일 새벽 2시30분께 북구 모 호프집 안방에서 40대 여주인을 살해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씨는 시신 옆에서 잠까지 자다가 동이 트자 도주했다.

선배 집에서 숨어지내던 장씨는 1주일 만에 붙잡혔다. 장씨는 살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올해 5월 만기 출했다. /김홍희기자 kimhy@

보수단체 직원 사칭 “북파 공작원 훈련” 속여 980만원 ‘꿀꺽’



○보수단체 직원을 사칭해 “북한에 보낼 공작원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서행.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여·43)에게 접근해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과거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에서 일한 적이 있

다”고 속여 단체 활동비 명목 등으로 8차례 걸쳐 98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A씨는 북파공작원 출신도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문구점에서 구입한 모의 총기 1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환심을 샀다”고 설명. /연합뉴스

국감서 전남경찰 이례적 칭찬 눈길

경찰 첫 ‘5·18 보고서’ 발간에 의원들 호평 잇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4일 열린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전남경찰이 발표한 ‘5·18 민주화 운동 과정 속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먼저 나서 5·18보고서를 발간해 주신 점은 큰 의미가 있으며, 고마움을 느낀다”며 “강성북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5·18기록에 대한 조작 행위를 밝혀내고, 진상규명에 나선 전남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남경찰이 발간한 경찰 최초의 5·18 보고서는 진실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5·18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져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룬 시일 내에 완료되길 바란다”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이같은 활동이 곧 공권력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는 역사와 의 화해이자, 국민에게 제감으로 와닿는 실질적인 경찰개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발굴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의 모범을 계속 보여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각종 유언비어와 왜곡에 대해 국가기관인 전남경찰청이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감하면 질책과 지적을 받는 게 일반적이인데, 칭찬을 듣게 돼 전남경찰의 소속원으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강성북 청장의 지휘 아래 지난 4월부터 TF를 꾸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치안을 맡았던 현장 경찰관의 증언과 비공개 기록을 담은 A4 용지 9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다. 전남 경찰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타기관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찰기록 및 역사적 사실 등이 왜곡·조작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5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5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